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유 경 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A Survey of Relationship between Growth, Distribution and Poverty

Gyeongjoon Yoo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본고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 2인과 본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준 본원의 조동철, 김용성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원고의 정리에 도움을 준 본원의 최바울 주임연구원에 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 핵심주제어: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분배(Distribution), 성장(Growth), 빈곤(Poverty)
- JEL 코드: B9, B8, A6
- 논문투고일: 2006. 7. 28 • 심사시작일: 2006. 8. 4 • 심사완료일: 2006. 9. 13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hich has been revealed through many empirical evidences, is that growth is distribution neutral on average and high asset inequality could be a hindrance of economic growth. The growth versus distribution dichotomy is false, as poverty reduction requires blending policy of growth and distribution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t this present, the pro-poor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recommended by the World Bank, should be urgently needed in Korea to achieve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ect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if the Korean government, in means of reducing absolute inequality, pursues anti-polarization policy. Specifically, we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bsolute poverty and absolute inequality on average.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서론

한국은 참여정부 이후 성장과 분배에 관한 정책논의과정에서 2005년부터 양극화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정의와 원인이 무엇이며,¹⁾ 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대책의 측면에서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부문 간 격차 확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역사와 한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느 시기이든 그 성장의 측면에서 산업간의 차이, 기업규모 간의 차이, 그리고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소득불평등도는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개방화(globalization)의 확대와 더불어 외환위기 전후로 각 부문에서의 이러한 격차와 소득불평등도의 확대가 경기변동의 추이를 넘어 심화되어 온 것도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가 양극화의 심화이며, 어느 정도까지 축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양극화 해결의 강조는 마치 자산이나 부의 불평등도 축소와 동일시되는 정책으로 여겨져 현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선입관을 줄 수도 있다. 소득불평등도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힘들고, 한편으로는 소득불평등도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단기나 중기에 있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추구 분야에 따라 경제성장에 상충효과(trade-off)를 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을 도외시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이는 성장률의 저하를 통한 빈곤퇴치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한편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배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이보다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표문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빈곤퇴치에 있어 성장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대립의 각만을 세우는 견해라 볼 수 있다.²⁾

1) 신동균·전병유(2005)는 외국문헌의 인용을 통하여 다극화(polarization)의 개념을 소개하고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극화의 개념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와 동일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2) 이러한 견해들은 대부분 학술적인 근거를 가진 논문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환위기 전후로 한국의 성장률은 저하되고 소득불평등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유경준·김대일[2003]). 또한 양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장동력의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의 감소는 양자 모두 달성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본고의 시작에 앞서, 비록 성장, 분배, 빈곤의 개념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일부는 본고의 IV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불평등도와 빈곤의 개념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사용되는 불평등도는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불평등도(relative inequality)를, 그리고 빈곤은 전체 가구나 인구 중에서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을 의미한다.³⁾

이러한 개념하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 매우 기초적인 사항이다.

첫 번째는, 빈곤의 감소에는 성장과 분

배의 두 영역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분배수준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성장의 추구나, 성장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분배의 추구를 통해서 빈곤이 제대로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빈곤감소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하는 경우 성장과 분배의 일방적인 추구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빈곤감소의 정책적 경로(결정요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을 위하여 성장과 분배의 관계, 성장과 분배 및 빈곤 3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인 연구 결과의 흐름을 최근까지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으나 한국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⁴⁾

또한 두 번째 목적, 즉 외국의 사례에서 발견된 평균적인 논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한

3)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빈곤선이 전체 소득의 평균 또는 중간값의 몇 % 이하로 정해지는 빈곤을 의미하며, 절대적 불평등도(absolute inequality)는 생활수준의 절대적 차이(the absolut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living), 즉 소득 격차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Ravallion(2005c)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외국의 경우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의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의 경우도 국민의 정부 이후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양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빈곤퇴치에 대한 이론이나 실증적 기반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것이다.

①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외국문헌 연구 결과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의 결정요인을 찾는 데 있어 외국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국가 간(cross-national) 자료에 기초한 연구 결과는 자료의 한계(국가 간 자료의 측정오차 문제 등)와 국가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하여 결정요인을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②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성장과 분배 문제의 논의과정이 지극히 소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는 각 측에서 일부 외국문헌에서 찾은 결과에만 의존하고, 한국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나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한쪽 방향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방통행적 주장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방통행적 태도는 경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③ 향후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에 기초한 기본적인 연구 결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외국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 그리고 빈곤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외국문헌의 분석 결과와 2000년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⁵⁾ 마지막 IV장에서는 본고의 요약과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한다.

II. 성장·분배와 관련된 논의

소득분배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불평등도(inequality)라는 용어는 이전에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단지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주어진 자산의 분배 결과나 토지, 노동, 자본, 재화 등의 다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도 또는 소득분배상황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면 성장률 등—에 대한 논의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5) III장의 성장과 분배 및 빈곤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II장의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의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의를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였다.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

하지만 분배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Ricardo와 Marx, 그리고 1950년대에 Kaldor(1956)에 의해 시도되었다. Atkinson(1997)은 Ricardo와 Marx의 연구를 산업의 생산에 참여한 계급 사이에서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하는 법칙을 찾는 연구라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초기의 성장론 연구에 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⁷⁾ 1956년에 발표된 Solow의 논문에서는 Kaldor 모델에서 사용된 분배와 성장의 연결고리-안정적인 성장경로를 위한 분배적 과정-가 빠지게 됨에 따라 이후의 성장론에서는 성장경로에서 분배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게 되었다.⁸⁾ Solow가 신고전파의 생산함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Solow류의 모형은 신고전학과 성장이론(a neoclassical growth theory)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개략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성장론에 있어 성장경로

에서 분배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게 되었다.⁹⁾ 즉, 신고전파 성장모형은 ‘대표 대리인(representative agent)’의 개념에 따라 사회의 선택을 한 개인의 선택으로 정형화하기 때문에 분배가 성장경로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나 부의 측면에서 동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평균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불평등도나 계층 간 소득분배상황의 변동 등도 중요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먼저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언급한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Kuznets(1955) 곡선의 관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Kuznets의 역U자 가설(inverse U hypothesis)은 경제발전단계에서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

6) 그러나 불평등도를 주어진 하나의 상황으로 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철학적인 판단과 선택이 가미된 바람직한 분배체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른 의미의 작업이다. 이런 종류의 논의는 Atkinson(1983)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Kaldor(1956, 1957)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다른 저축비율에 의해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균계균형상태로 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임금에서의 저축이 이윤에서의 저축보다 낮게 되면 자본축적비율을 감소시켜 K/L 의 비율을 균형수준으로 하향시키며, 반대의 경우는 상향시키게 된다.

8) Solow(1956)는 자본과 노동비율이 오목(concave)한 생산함수와 일정하고 외생적인 인구증가율만을 이용하여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자본-노동비율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9) Solow(1956)의 모형은 1960년대의 Arrow(1962)와 Uzawa(1965), 그리고 1980년대에 각각 내생적인 기술진보와 인적자본 축적으로 대표되는 Romer(1986)와 Lucas(1988)의 모형으로 이어지게 된다.

화되지만 나중에는 개선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Lewis(1954)의 노동의 무한적 공급을 통한 성장모형에 영향을 받아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노동력이 저생산성 분야에서 고생산성 분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나중에는 고생산성 분야가 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역U자 가설을 지지하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 Kravis(1960)는 11개국의 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변이계수 및 표준편차 등의 비교를 통하여, 그리고 Kuznets(1963)는 “덜 발전한 나라들이 더 발전한 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검증을 통하여 Kuznetz의 가설을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Paukert(1973)는 “가장 빈곤한 개발도상국이 덜 빈곤한 개발도상국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다”는 검증을 통하여 역시 Kuznetz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한편 회귀방정식 등을 이용한 Kuznetz 가설의 검증도 많은 연구자들(Adelman and Morris[1973], Ahluwalia [1974, 1976a, 1976b], Cline[1975] 등)에 의해 시도되고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Adelman and Robinson은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1989, p.968)에서 국제비교를 통한 기존의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연구들은 하나의 서술적인 결과에 동의하고 있다. 농업기반의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이동하는 동안에 경제발전과정의 초기 국면은 소득불평등도가 필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Kuznetz 가설에 의한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른 분배 및 성장양상과 검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정립된 가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Fields(1980, 1989, 2001)의 연구와 Fields and Jakubson(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Fields(1980, 1989)는 각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역U자 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을 제시하였다. 즉, 역U자형 가설은 콜롬비아에서는 발견되었으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Oshima(1991)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역U자 가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제시하여 Fields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 Fields and Jakubson(1994)과 Fields(2001)는 앞선 연구들에 대한 상이한 결과들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각국의 소득불평등 자료를 가능한 한 표준화시키고 국가 내의 시계열 자료와 국가 간의 횡단면 자료(35개국)를 합한 후 패널분석 기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을 이용하여 Kuznetz 가설을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각국의 모든 자료를 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널기법을 이용한 결과는 오히려 U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Fields and Jakobson(1994)의 논문은 각국의 특성을 통제하고 난 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경제개발의 환경이 다르고, 경제개발의 전략이 다르다면 성장 초기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에도 Deninger and Squire(1998)와 Ravallion and Chen(1997)에 의해 Kuznetz 가설의 기본 명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Deninger and Squire(1998)는 개선된 자료(Deninger and Squire[1996])를 이용하여 Kuznetz 가설이 성립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아가 Ravallion and Chen(1997)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구 유럽과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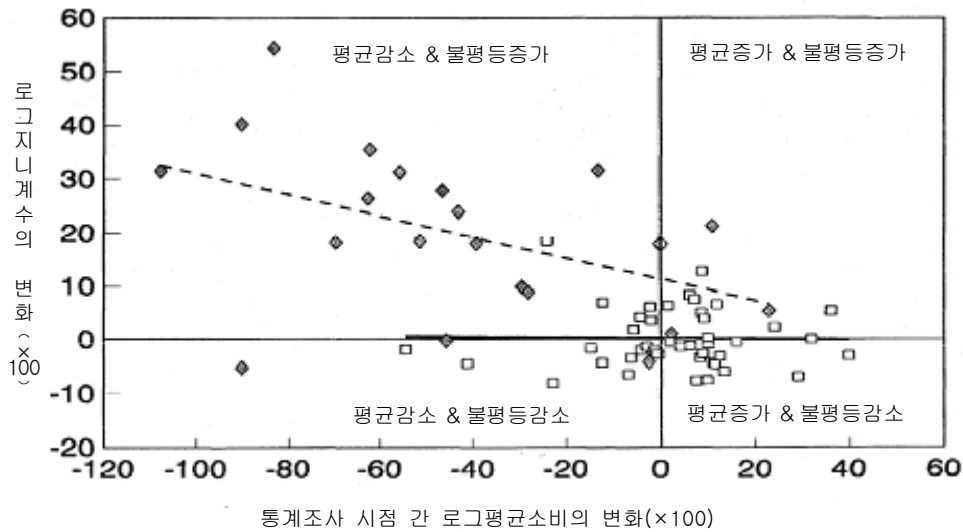
아시아(EECA)를 포함하는 64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소득의 변화와 불평등도 변화(성장률과 불평등도 변화율)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⁰⁾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distribution neutral)’이다”는 점이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cross-countries)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에서 Kuznetz의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각 국가들에 대한 특징적인 연구 결과들(case studies)이 무시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Kuznetz 가설의 성립근거가 상실되었다면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경로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연구가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상황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기의 성장과 분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경로(또는 그 반대의 경로)에 대한 일정한 정보가 있어야 분배와 성장에 대한 정책적 혼합(policy mix)을 선택할 수 있

10) 그들은 전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성장의 변화와 불평등도 변화(성장률과 불평등도 변화율)는 오히려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EECA 나라를 제외할 경우는 반비례 관계가 없어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성장률과 불평등도 변화율



주: ◆는 EECA(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국가, □는 그 외의 국가.
 자료: Ravallion and Chen(1997), p.35에서 인용.

기 때문이다. 즉,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안정과 경제성장의 조화(브루킹스연구소[2006]), 세계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곤퇴치를 위한 성장(pro-poor growth)(World Bank[2005]) 등에서 보듯이 분배와 성장에 대한 적절한 정책조합의 선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에 적합한 분배 및 성장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미래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불분명하지만 성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가 일목요연하다는 점이다. 즉, 성장을 하게 되면 빈곤이 평균적인 의미로 감소한다는 점은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¹⁾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분배 및 성장 전략의 범주에 빈곤을 포함시킨, 즉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3자 관계를 고려한 정

11)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Ravallion and Chen(199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의미에 주의를 요하는데, 이는 성장에 따른 빈곤율의 감소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III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책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유가파동(oil shock)으로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고실업 상황 이후 분배구조가 많은 국가에서 나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유경준·김대일[2003]).¹²⁾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① 기술진보, ② 국제무역 개방화의 진전, ③ 조직의 변화(노동조합의 약화 포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기술진보를 원인으로 보는 견해는, 저임금·저기능 근로자보다 고임금·고기능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술진보는 고임금·고기능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고, 저임금·저기능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양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논리이다(Krueger[1991]). 두 번째 국제무역의 개방화를 원인으로 삼는 견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국제무역의 개방화는 요소가격균등화이론(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에 따라 선진국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켜 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논리이다(Murphy and Welch[1991], Borjas, Freeman, and Katz [1992]). 세 번째 조직의 변화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조직은 수평화되고 다기능의 근로자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임금수준의 평균화를 이루지 못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하락되어 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는 견해이다(Freeman [1993]).

위의 견해가 임금소득불평등도 확대원인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폴 크루그먼(1997)은 국제무역 개방화 견해에 대해 논리상에 근거를 두지 않는 대중국제주의자(pop internationalist)의 잘못된 주장이라 평가하여 미국 내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지속적인 확대는 기본적으로 기술진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ghion et al.(1999)은 개방화나 조직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악화 또는 개선시킬 수 있으며, 단지 양자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와 결합될 때 소득불평등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술진보를 소득불평등도 악화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¹³⁾

한편 분배구조가 나빠진 국가의 경우를 Kuznetz 가설과 Fields 등의 반증으로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현재 빠른 기술진보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

12)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그 이유는 세계의 불평등도를 논할 때 인구기준이나, 국가기준이나 등 분류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Ravallion(2004b)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Aghion et al.(1999)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기술진보와 개방화, 교육 등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한 분배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체제(지식기반산업 등)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새로운 경제발전단계의 시작으로 해석한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었고, 빠른 기술진보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¹⁵⁾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결국 평균소득과 소득불평등도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같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분포와 경제성장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어느 국가의 분배상태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면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의 성장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증은 19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점차 증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높은 부의 불평등도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① Kaldor의 성장론에 근거한 것으로 부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저축성향이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 ② 투자 불가분성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나 혁신에 대한 투자에는 커다란 함몰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③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고전적인 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높은 소득불평등도가 성장을 감소시킨다는 1990년대에 시작된 새로운 논의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전과 성장이론의 영향으로 1980년대까지 분배가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alor and Zeira (1993)는, 부와 소득의 분배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단기와 장기에 있어 생산과 투자, 그리고 외부적 증

14) 개방화와 소득불평등도, 빈곤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Aisbett(2003), Ravallion(2001b, 2003b, 2005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앞의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대부분의 논문이 주로 성장이 소득불평등도(wage or earning inequal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분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대부분의 논문이 부(wealth)의 불평등도를 다루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분배 상황이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에 대한 개인의 투자에 따라 총체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다.

격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 이후에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높은 부의 불평등도가 성장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① 정치경제적 경로, ② 사회적 갈등, ③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정치경제적 경로

먼저 정치경제적 경로는 Bertola(1993), Alesina and Rodric(1994), Persson and Tabellini(1994)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의 논의의 근거는, 중위투표이론(median vote theorem)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일수록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국가정책의 설정과정에서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조세율을 높이는 쪽에 투표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어(중위소득자의 의향에 따라) 불평등도가 심할수록 높은 조세율을 택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조세의 징수는 근로와 저축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켜 결국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률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즉, '높은 불평등도 → 빈곤한 중위투표자 → 과도한 조세율 → 경제적 동기 왜곡 → 낮은 성장률'

로 순환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많이 인용되기는 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Perotti(1996)가 보여주었듯이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조세체계는 역진적(regressive)이며, 국가 간(cross-countries) 실증분석에서도 불평등도와 조세율이 반비례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이론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나. 사회적 갈등

두 번째 사회적 갈등에 근거한 이론은,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를 줄이게 되어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지(Alesina and Perotti [1996])와 불평등도가 커지면 외부적 충격에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조절능력을 떨어뜨려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Rodric[1997]). Rodric(1997)은, 1980년대에 아시아와 남미가 유사한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남미가 아시아에 비해 불평등도가 더 컸기 때문에 회복이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류의 논의에는 불평등도가 자살이나 범죄, 폭력 등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Bourguignon(1998)은 증가하는 폭력(violence) 때문에 사회에 부과되는 생활에 대한 직접적 비용과 의료부담,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소탕하기 위해 전환되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민간 및 정부 자원

의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세 번째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은,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소득분포의 영향이 단지 경제의 효율성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생산의 기회는 부의 분포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많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즉, 빈자는 부자에 비해 그들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발휘할 기회(예를 들면 교육비, 사업자금 등의 조달 측면에서)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덜 효율적이고 적은 생산능력을 가지게 되며, 동태적으로는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보험 및 신용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실패에도 적용된다. 이 논의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의 정치경제학적 경로와 결합되어 논의가 전개되는데 정치경제학적 논의와는 달리 불평등도와 조세를 연결시키지 않고 사전적인 부와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를 논의하기 때문에 계량분석의 측면에서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의 불평등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위 세 가지 근거 중 세 번째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불평등도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실증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lesina and Rodric(1994)과 Persson and Tabellini(1994)의 실증분석은 양자 모두 축약형(reduced form equation) 모형을 구축하고, Deninger-Squire의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도 변수(초기 불평등도, 교육연한, 물적·인적 투자)들의 성장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Perotti(1996)의 논문도 유사한 방법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Forbes(2000)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즉, 그녀는 패널자료와 고정효과기법을 이용하여, 이전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소득불평등도의 성장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Forbes(2000)의 연구 역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Atkinson and Brandolini(1999), Barro(2000), 그리고 Ravallion(2001a) 등은 Forbes(2000)의 계량분석기법, 데이터의 사용방법과 선택방법, 변수

16) Li and Zou(1998)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추정으로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정 효과모형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증폭시켜 성장과 불평등도 간의 허위(spurious) 상관관계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arro(2000)는 위의 비판을 근거로 새로운 추정을 통하여 소득불평등도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빈곤국의 경우는 높은 소득불평등도가 성장을 저해하고, 반대로 선진국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Banerjee and Duflo(2003)는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것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다음 기의 성장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Deninger and Squire(1998)와 Birdsall and Londoño(1997)는 소득불평등도의 성장에 대한 음의 추정치는 각각 토지소유 불평등도(land ownship)와 인적자원의 자산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될 경우 그 유의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면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논리는 계량적으로 뒷받침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산의 불평등도가 크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계량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asterly and Rebelo(1993)는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그리고 Lindert(2004)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을 통해 복지지출의 증가가 성장을 저해한 증거가 없다는 이른바 공짜점심 퍼즐(free-lunch puzzle)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Perotti(1996)는 높은 한계조세율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소득불평등도가 한계세율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짓기에는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처럼 아직 자료의 한계 및 계량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 결

결론적으로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과 실증분석의 측면에서 각각 상반된 견해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초기의 소득불평등도가 성장을 감소시킨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자산(부 및 인적자산)의 불평등도가 성장을 저해(성장률과 성장의 질 측면에서)한다는 논의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Kanber(2000)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이 높은 부의 불평등도가 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은 계량적 근거가 있으나, 증가하는 불평등도(rising inequality)가 빈곤감소를 저해시킨다는 주장은 계량적 근거가 작다는 점이다. 좀더 부연하면, 빈곤과 상대적 불평등도(예를 들면, 지니계수)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나,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예를 들면, 소득 격차) 간에는 평균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다(Ravallion[2005c]).¹⁷⁾ 이러한 관계는, 빈자와 부자 간의 절대적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은 오히려 빈곤층의 절대적 소득수준을 낮추어 빈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Kuznetz 가설 등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계량분석과정에서 성장과 분배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양자가 서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No correlation does not mean no impact).¹⁸⁾ 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잘 정리되지 않은 국가 간(cross countries) 자료이며, 실증분석의 결과는 평균적인 결과만을 의미하므로, 개

별 국가의 경우는 성장경로나 현재의 불평등도 등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 있어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은 외국 경험의 참고도 중요하지만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Ⅲ.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이라는 개념하에 빈곤을 낮추는 성장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명제가 등장하게 된 시기와 유사한데 빈곤퇴치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성장과 분배의 관계가 다시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⁹⁾ 물론 이 논의는 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

17) 나아가 Ravallion(2004b)은 성장과 절대적 불평등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Fields(2001, p.6)는 양자가 양의 상관관계가 아닌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18) Ravallion(2001a).

19) 'pro-poor growth'를 '친빈곤적 성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pro-poor growth'는 'pro-growth(친성장)'와 'pro-poor(친빈곤)'의 합성어적 성격이므로 '친빈곤적 성장'이라는 번역이 어색하

로 하고 있지만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3자 관계에 대한 재조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⁰⁾

소득분포의 변화는 두 가지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소득분포(불평등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평균소득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growth effect)과 평균소득이 변화되지 않고 상대적 소득분포만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distribution effect)으로 분해된다.

이러한 분해방법 역시 전술한 문헌을 중심으로 유사하면서도 다소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초로 분해방법을 언급한 Datt-Ravallion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타 문헌의 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P_t 를 어느 시점의 빈곤율, z 를 빈곤선, u_t 를 평균소득, 그리고 L_t 를 t 기의 로렌즈커브라고 한다면 P_t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t = P(z/u_t, L_t)$$

따라서 빈곤수준은 빈곤선에 대한 상대적 평균소득 또는 상대적 불평등도인 L_t 의 함수로 표시된다.

앞에서의 정의에 따라 L_t 을 어느 기준

시점의 로렌즈커브라 하고, u_t 를 역시 그 기준시점의 평균소득이라 한다면 빈곤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t+n} - P_t = \underbrace{P(z/u_{t+n}, L_t) - P(z/u_t, L_t)}_{\text{성장요인}} +$$

$$\underbrace{P(z/u_t, L_{t+n}) - P(z/u_t, L_t)}_{\text{분배요인}} + R(t, t+n; r) \quad \text{잔차요소}$$

위 식에서 $R(\)$ 은 잔차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내용은 순서대로 분해에 있어서의 시작시점, 종료시점, 기준시점을 의미한다.²¹⁾

성장과 분배 요인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t, t+n; r) \equiv P(z/u_{t+n}, L_t) - P(z/u_t, L_t)$$

$$D(t, t+n; r) \equiv P(z/u_t, L_{t+n}) - P(z/u_t, L_t)$$

위 분해식을 그림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Bourguignon[2003]). 위와 같이 빈곤의 변화를 일정한 가정(타 요소를 고정)하에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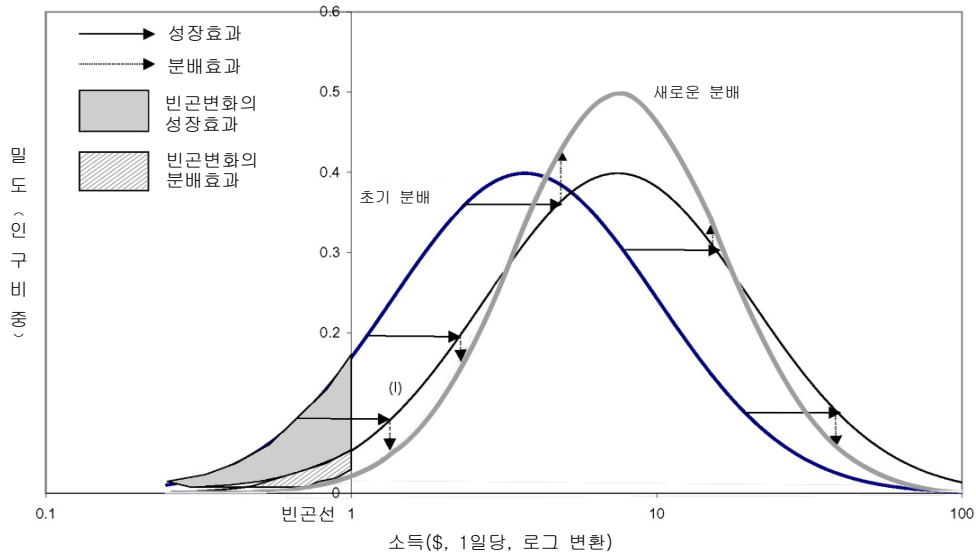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성장과 더불어

다. 따라서 필자는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20) Datt and Ravallion(1992)을 필두로 Kakwani(1993), Fields(2001), Bourguignon(2003) 등이 대표적이다.

21) 잔차는 평균소득(로렌즈커브)의 변화가 빈곤지수에 미치는 한계적 영향(marginal effect)이 로렌즈커브(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지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잔차를 없애려는 노력들은 또 다른 오류를 초래한다(Datt and Ravallion[1992]).

[그림 2] 빈곤의 변화 분해



자료: Bourguignon(2003).

어느 정도 변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를 성장하는 동안에 변화할 수 있게 한다면,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논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Kakwani(1993)는 로렌츠커브가 동일한 비율로 변화한다는 가정하에 빈곤의 분배탄력성에 대한 식을 제시하여 성장-분배-빈곤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또 다른 방법은 Bourguignon (2001, 2003)이 제시한 방법으로, 소득분포의 형태를 특정한 함수형태(평균과 분산에 의해 지배를 받는 로그정규분포)로 가정한 후 성장-분배-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Bourguignon의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평균소득과 불평등도에 대한 빈곤(헤드카운트 비율)의 성장탄력성(ϵ)을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begin{aligned} \epsilon &= - \frac{\Delta H}{\Delta \log(X) H_t} \\ &= \frac{1}{\sigma} \lambda \left[\frac{\log(Z/X_t)}{\sigma} + \frac{1}{2} \sigma \right] \end{aligned}$$

여기서 $\Delta \log(X)$ 는 소득의 변화율, $\Delta H/H_t$ 는 헤드카운트 빈곤의 변화율, σ 는 로그소득의 표준편차, 그리고 λ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함수(또는 위험률)에 대한 밀도의 비율이다.

위의 식에서 빈곤의 성장탄력성은 성

장(Z/X 의 역수)의 증가함수이며, α 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의 감소함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규분포의 가정하에 성립하는 내용이며, 이론적으로 빈곤의 성장탄력성과 초기 성장수준(initial mean)의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Ravallian[2005a]).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이라는 개념이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과연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삼각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된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빈곤감소적 성장의 개념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Baulch and McCulloch(2000)와 Kakwani and Pernia(2001)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빈곤은 소득이 증가한 것 이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Ravallion and Chen(2003)에 의한 것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을 의미한다.

첫 번째 정의는 정의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성장과정의 분배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감소적 성장이란 빈곤자의 소득증가가 비빈곤자의 소득증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즉 소득분

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상대적인 정의(relative defini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장을 하였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어 빈곤자가 비빈곤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았다면 빈곤감소적 성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정의는 빈곤 자체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빈곤만 감소하는 절대적인 정의(absolute definition)를 의미한다.

양자의 개념 차이는 측정방법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가열되고 있다. 즉, Ravallion and Chen(2003)과 Ravallion(2004a)은 와트지수(Watts index)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의에 부합하는 빈곤감소적 성장률의 측정방법을 제안하였으며, Kakwani et al.(2003)은 빈곤감소지수(pro-poor index)와 빈곤동등성장률(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s)의 제안을 통해 역시 그들 정의에 부합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의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2005])에서는 상대적인 기준이 빈곤감소보다는 불평등도의 감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불황이 되었을 때 빈곤자의 소득이 비빈곤자보다 덜 감소하였다면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정의에 의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빈곤감소적 성장에는 위 두 가지 개념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빈곤을 추정하느냐도 문제이다. 빈곤의 추정에 있어 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이나, 또한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 빈곤의 변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위의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정의의 차이와 빈곤선 및 빈곤추정치 선정 문제는 빈곤감소에 있어 용어의 정의 차이에 대한 문제로 다시 연결된다.

2.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전통적으로 성장 옹호자들은 성장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빈자에게 돌아간다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를 굳게 믿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소득과 부의 분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평등도의 감소는 빈곤의 퇴치에 필요하고 성장은 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immiserizing growth) 주장한다.

이는 앞 절에서 빈곤의 탄력성 분해 결과에서 보았듯이 빈곤의 감소는 성장과 분배 양자에 모두 의존하기 때문에 양자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빈곤의 성장탄력성이 크나 아니면 분배탄력성이 크나 하는 실증분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장에 빈곤율을 회귀시켰으나 이것은 국가 고유의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Ravallion [1995])에 따라 차분(differencing)을 이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제거한 후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회귀방정식을 통해 바로 추정한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에 많이 제시되었다. Ravallion(1995), Ravallion and Chen(1997), Ravallion(2001a)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달러의 헤드카운트(Headcount) 빈곤선을 이용하고, World Bank 자료를 가지고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구하였는데, -2.4를 기준으로 자료의 확대 여부 및 빈곤선의 변화에 따라 -1.57~-3.12의 성장탄력성을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은 평균적으로 빈곤을 낮추며, 불평등도와 관련해서는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높은 성장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²⁾

그러나 위의 추정방법은 빈곤의 불평등도와 성장수준에 대한 의존성을 무시한 채 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고정된 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형 설정상

22) 1달러 헤드카운트 빈곤선으로 16개국 자료를 이용한 Ravallion(1995)에서는 -2.4($R^2=0.64$)의 탄력성을, P2를 빈곤선으로 이용한 경우는 탄력성이 -4로 추정되어 빈곤층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성장탄력성은 높게 나오며, Ravallion(2001a)에서는 1달러 헤드카운트 빈곤선으로 구한 탄력성은 -2.5, R^2 는 0.44로 추정되었다.

의 오류(mis-specification)를 범할 수 있다.

이의 교정을 위한 회귀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앞 절에서 언급한 Kakwani(1993)와 Bourguignon(2001)에 의해 시도된 방법인데, 모두 빈곤감소의 성장탄력성을 얻기 위하여 분배함수의 형태를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번째는 Ravallion(1997)이 시도한 방법인데,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distribution-corrected rate of growth[(1-Gini) · growth rate])을 빈곤감소율에 회귀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Bourguignon(2001)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부연하면 불평등도의 변화가 없을 때 빈곤의 성장탄력성 크기는 빈곤선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그 탄력성은 빈곤선을 고정하였을 때 성장 정도가 클수록(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조 증가한다. 또한 빈곤탄력성은 불평등도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불평등도는 빈곤의 퇴치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

였다.

“장기에 있어 빈곤퇴치는 기본적으로 지속된 성장(sustained growth)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재분배는 빈곤의 감소에 필수적인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소득재분배는 모형에서 검증된 ‘분배효과’를 통해 빈곤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며, 그뿐 아니라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증가시켜 주어진 경제성장률하에서 빈곤감소 속도를 증가시킨다.”

Ravallion(1997)은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 결과를 얻었다.²³⁾

$$\Delta H/H_t = 4.435(1-Gini_t)\Delta X/X_t + \text{residual}, \\ N=41; R^2 = 0.36$$

위의 추정 결과를 통해 표본에서 가장 낮은 불평등도(0.25)에 대한 빈곤선 1.5달러의 성장탄력성은 -3.3이며, 가장 높은 불평등도(0.41)에 대한 것은 -1.8로 계산되며, 평균은 -2.6으로 계산된다. 이는 초기 불평등도(initial conditions)가 높을수록 빈곤의 성장탄력성은 낮다는 점을 의

23) Ravallion(2005a)은 Kakwani(1993)나 Bourguignon(2001)의 경우처럼 분배함수형태를 고정시키는 것은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구하는 데 있어 전체의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탄력성(partial elasticity)만을 구하게 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들 방법의 한계를 강조하였다. 즉, Ravallion(2005a)은 빈곤감소의 성장탄력성(growth elasticity of poverty reduction)은 소득분포를 고정한 빈곤탄력성(부분 탄력성)과는 다르며, 전체 탄력성(total elasticity)은 빈곤감소의 비율을 성장률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평균적으로 성장이 분배중립적이라면 두 개의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같아지나, 특정한 국가나 시기에 있어서는 다르다. 두 개의 빈곤탄력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초기 불평등도의 수준(initial level of inequality)과 각 시기의 불평등도 변화(inequality changes over time)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한다.

Ravallion(2001a)에서는 위의 회귀식에서 좀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구하였는데 처음의 결과와 유사하다(아래 식에서 P_0 는 헤드 카운트 빈곤율을 의미).

$$\Delta \log P_0 = -3.74(1-Gini_t)\Delta \log(X) + \text{residual}$$

N=115; R^2 = 보고되지 않음.

한편 위의 모형은 불평등도가 빈곤에 대한 성장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 모형 역시 빈곤의 성장탄력성이 성장의 수준(Z/X)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의 성장탄력성이 일정하지 않고 비선형이라면 모형 설정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Bourguignon(2001)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Ravallion은 1997년의 논문에서 이미 위의 모형이 안정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Ravallion(2005a)에서는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이라는 설명변수를 $(1-Gini)$ 에서 $[(1-Gini)]^\theta$ 형태의 비선형($\theta = 3$)으로 수정하여 회귀분석을 다시 시도하였다. 추정 결과 성장탄력성은 초기 지니계수에 따라 -4.3~-0.6 사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 모형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는 빈곤이 느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나라는 빈곤을 빨리 감소시키기 위해서 통상적

으로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다시 한번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나 지역은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경우 빈곤의 증가가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나라나 지역보다 낮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growth versus distribution dichotomy)은 오류임이 확인된다.

한편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논의는 “성장을 하면 항상 빈곤이 감소되느냐?”는 질문에 앞의 논의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기존의 실증분석으로 확인된 사항(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이며, 성장에 따라 절대적 빈곤의 수치는 감소한다; Ravallion[1995], Ravallion and Chen[1997], Fields[2001], Kraay[2005])과 빈곤감소에 있어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빈곤감소적 성장의 두 번째 정의와 관련된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실증분석에서 평균적으로 확인된 사항과는 평균적으로 부합하나, 첫 번째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성장을 통해 빈곤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혜택을 덜 받은 나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의 감소에서 성장요인이 분배요인보다 컸다는 점이 성장이 빈곤퇴치의

유일한 방법이라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Ravallion(2004a)에서 언급하였듯이 위의 평균적인 실증분석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빈곤층에 유리한 효과적인 재분배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의미하나, 이 점이 빈곤감소적 재분배의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이 분배중립적이라는 결과가 분배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분배의 악화는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역시 분배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는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의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위의 분해방법은 빈곤선이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절대빈곤의 개념)에서 전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빈곤의 분석에서 그만큼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좀더 보편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상대빈곤(예를 들면 5분위수 등)을 이용한 빈곤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은 빈곤감소의 필수조건이며, 성장 없이는 빈곤감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그 자체로 또는 빈곤의 성장탄력성 감소를 통해 성장에 저해가 되므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에 중심을 두고 그를 통한 빈곤감소를 위하여 성장뿐만 아니라 분

배에도 유리한 정책적 조합을 찾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3.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의 설정

가. 정책설정이 어려운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장, 분배 및 빈곤과 관련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성장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불평등도의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빈곤감소적인 성장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양극화정책이 소득불평등도의 완화에만 치우쳐 성장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반대로 성장을 통해 빈곤감소가 중요하다는 반대 측의 견해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빈곤감소에 있어서 분배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에서도 양자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설정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기존의 연구도 대부분 우리보다 후진국에 대한 연구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에 대한 연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외

국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는 성장이 평균적으로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다수의 실증분석이 존재한다 하여도 성장이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의 이질성(heterogeneity)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²⁴⁾

Kanber(2001)는 2000년대 초반까지 빈곤과 성장, 분배에 있어 동의가 구해지고 있는 견해와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견해의 본질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소위 성장론자를 그룹 A, 성장론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자들을 그룹 B라 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첫째 빈곤의 퇴치에 있어 교육과 보건(health)의 개선은 소득의 개선만큼 중요하다.²⁵⁾ 둘째, 환경문제와 불안정한 금융시장, 열대농업과 질병 같은 국가 간 전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실용화된 NGO와 같은 기구의 등장으로 국가 대 시장(State vs. Market)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매우 감소되어 국가와 시장이 둘 다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반대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집계(aggregation)의 문제, 시계(time horizon)의 문제, 시장구조에 대한 가정(assumptions of market structure)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집계의 문제는, 보통 그룹 A의 경우는 빈곤율이 전체 인구에 대한 빈곤자의 비율로 측정되어 이 비율의 감소를 빈곤의 감소로 여기나, 그룹 B의 경우는 빈곤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인구의 증가로 빈곤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한 나라의 빈곤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빈곤의 감소가 지역별, 도농 간, 그리고 성별로 서로 다른 그룹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빈곤율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시장참여의 기회가 늘지 않으면 빈곤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뿐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도의 개념에 있어 각각(특히 불평등도) 상대 및 절대적 기준에 있어 어느 쪽을 의미하느냐의 차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둘째, 시계의 문제는 빈곤감소를 보고자 하는 기간이 단기이냐, 중기이냐, 장기이냐는 것이다. 그룹 B는 단기에 살아남아야만 중기 이후를 볼 수 있다는 견해

24) 이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 논의에서 Kuznets 가설이 처음에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다가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에 의해 기각되는 과정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25) 그러나 빈곤을 감소시키는 여러 요인 중 교육과 보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에 따라 단기, 또는 남북문제(선진국과 후진국)의 해결을 위해 장기에 관심을 가지며, 그룹 A는 경제구조 변화에서 시장과 생산요소가 조정될 시간의 고려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중기(5~10년)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계의 차이는 사회안전망의 시급성과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유발한다.

셋째, 시장구조의 문제는 시장구조를 완전경쟁으로 보느냐(성장론자), 독과점(반성장론자)으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이다. Kanber(2000)는 시장구조에 대한 개념은 빈곤자가 개방화, 자본이동, 민영화 등에 대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경쟁적 시장구조하에서 경제정책의 분배적 결과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Kanber(2000)는 위의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 성장의 개념에 대한 차이(즉,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룹 A의 성장은 실질 1인당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룹 B는 소득뿐만이 아닌 다양한 성장개념 간의 특정한 정책조합(policy packages)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가 빈곤의 감소에 유용하다

는 사실은 그룹 B도 동의하나 그룹 A가 추구하는 '성장우선주의 정책'의 맹목적 신봉이나 "성장이 모든 것이다"라는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성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하면서 급속한 자본 및 외환시장의 개방과 같은 일방적인 성장정책을 요구하는 정책조합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 B에 있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성장주의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분배나 빈곤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의 채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나. 빈곤감소의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 연구

성장-분배-빈곤과 관련된 정책의 설정에 있어 위와 같이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은 서로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빈곤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설정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성장-분배-빈곤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llar and Kraay가 "Growth is Good for the Poor"(2002)라는 제목으로 방대한 자

26) 이러한 견해 차이는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화(개방화)가 불평등도, 빈곤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느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료(40년, 92개국)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5분위(빈곤계층)의 평균소득은 지역이나 시간, 소득수준, 성장률에 관계없이 전체의 평균소득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커다란 논쟁의 기원이 되었다. 이들의 논지는 하위 5분위의 소득비중은 평균소득이 변화(성장률)해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빈곤층의 소득비중은 평균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빈곤층의 분배는 성장에 관계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장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법치주의, 개방화, 금융시장의 발전—은 하위 5분위의 소득비중에 별다른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정부규모의 전반적인 축소와 물가상승을 예방하는 안정화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빈곤계층의 소득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빈곤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출, 농업의 노동생산성, 민주적 제도를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체계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결과에 대하여 자료들의 한계로 인한 측정오차의

가능성과 국가 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복잡한 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인한 한계 등을 스스로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장을 빈곤퇴치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분배의 성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나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Ravallion(2001a)은 Dollar and Kraay(2002)가 한계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여 초기의 높은 불평등도는 빈곤의 성장탄력성을 낮추어 빈곤해소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과 개별 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⁷⁾

그 외에도 교육의 경우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Dollar and Kraay(2002)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고 교육은 빈곤퇴치에 유용하다는 내용을 제시한 Gundlach, Pablo, and Weisert의 “Education is Good for the Poor”(2004)라는 연구가 있다.

한편 Dollar and Kraay(2002)의 논문에 기초를 두고 유사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빈곤감소적 성장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논문이 Kraay(2005)이다.

27) Dollar and Kraay의 논문은 Ravallion의 논문보다 일찍 작성되었으나 학술지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Ravallion의 논문보다 늦게 게재되었다.

그는 Datt-Ravallion의 분해법에 기초하여 절대빈곤의 감소를 ① 평균소득의 증가율과 ② 평균소득의 증가율에 대한 빈곤 변화의 민감도(빈곤의 성장탄력성), ③ 상대소득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고,²⁸⁾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발도상국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상대적 크기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빈곤의 변화를 분산 분해법을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 단기에 있어 70%, 장기에 있어 97%가 평균소득의 증가(성장)에 기인하며, 평균소득의 증가율에 대한 빈곤 변화의 민감도는 매우 미미한 기여를, 상대소득 변화에 기인한 부분(분배요인)은 성장요인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Dollar and Kraay(2002)와 유사하며, 그 역시 국가 간 자료에 기인한 변수들의 측정오차 등으로 인한 국가 간 분석 결과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빈곤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성장 및 분배와 관련된 요인)을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각각 다중(일부는 단순 회귀)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의 한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장과 관련된 변수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 재산권의 보호, 법치주의²⁹⁾ 등을 대리변수로 사용, 개방화(openness to international trade), 인플레이션(안정적인 통화정책의 대리변수, 1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의 로그), 정부의 크기(GDP에서 정부의 소비 지출 비중), 금융 수준(GDP에 대한 M2의 비중), 그리고 성장과는 덜 관련되어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 소득불평등도와 관련이 있다는 민주화의 정도,³⁰⁾ 농업의 상대적 생산성, 초등교육연한 등을 빈곤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자료를 이용한 성장회귀분석의 경우 초기소득수준을 통제하고,³¹⁾ 분배 회귀분석의 경우는 다른 통제변수 없이 위의 개별 변수들을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 성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제도의 질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든 다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기에 대한 같은 분석은 역시 제도의 질만이 성장 및 분배에 대하여 각각 1% 및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제도

28) 크게는 ①과 ②를 더한 성장요인, ③의 분배요인으로 구분된다.

29) 구체적인 내용은 Kaufmann et al.(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30) 앞의 주 29의 내용과 같다.

31) 성장모형에서 초기의 소득불평등도를 독립변수의 하나로 통제하는 이유는 Ravallion(2001b)에서 각국의 불평등도 수준이 지니계수 0.4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raay(2005)는 초기 불평등도의 수준을 성장회귀모형에 포함시켰으나, Kraay(2005)는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1> 성장과 분배 변화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평균소득 연간 변화율	지니계수 연간 변화율	빈곤율의 연간 변화율	
			성장요인	분배요인
초기 소득	-0.015 (1.36)	-0.007 (1.29)	0.035 (1.66)	-0.013 (1.17)
법치주의	0.047 (1.98)*	-0.008 (0.66)	-0.058 (1.55)	0.005 (0.31)
개방화(Trade/GDP)	0.023 (2.08)*	0.010 (0.95)	-0.048 (2.23)**	0.030 (1.89)*
정부소비지출	-0.279 (2.23)**	-0.045 (0.40)	0.588 (2.10)**	-0.223 (1.06)
R ²	0.24	0.08	0.26	0.19
관측치	41	41	41	41

주: () 안은 Heteroskedasticity-consistent를 적용한 t-값임. *, **은 각각 1%, 5%의 오차범위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Kraay(2005).

의 질의 추정치는 양으로 추정되어 법치주의가 확립될수록 빈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는 아니나 제도의 질과 같이 다소의 상충관계를 보이고 있다. 개방화, 인플레이션, 금융수준 그리고 초기 교육 정도는 성장과 빈곤율에 양의 효과를, 정부지출은 성장과 빈곤율에 모두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raay(2005)는 단순회귀분석에서 발견된 성장 및 분배 변수들의 다소의 상충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장기표본을 대상으로 성장과 소득 불평등도를 종속변수로, 초기 소득(초기

불평등도), 법치주의, 개방화, 정부소비지출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하였으며, 또한 빈곤의 변화율을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구분하여 같은 독립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의 빈곤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요인의 경우 개방화와 정부소비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1% 유의수준에서) 빈곤율을 감소 또는 증가시켰으며, 법치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10% 유의수준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배요인의 경우 개방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5% 유의수준에서) 빈곤율을 증가시키며, 법치주의와

정부소비지출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10% 유의수준에서) 각각 빈곤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법치주의와 개방화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지출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Kraay(2005)는 Dollar and Kraay(2002)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자료에 의한 논문의 한계 등을 이유로 개별 국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언급은 Ravallion(2005a)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위의 빈곤감소의 여러 결정요인 중 개방화(globalization)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2002년 이후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로 성장·분배·빈곤의 논쟁에서와 유사하다.³³⁾ 먼저 개방화에 대한 정의가 개방론자와 반대론자 간에 다르기 때문이며, Kanber(2001)의 지적처럼, 집계의 문제, 시계의 문제, 시장구조의 문제, 소득 이외의 개방화의 과실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 문제 등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료 및 빈곤의 측정치(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에 따라서 개방화가 빈곤이나 불평등도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Ravallion[2003a, 2005b], Aisbett[2003]).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현재까지의 결론도 각국에 있어 이질성이 매우 크므로 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결정변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avallion[2005b], Aisbett[2003]).³⁴⁾

따라서 빈곤감소에 관한 논쟁에 있어

32) 성장요인의 부호는 성장에 대한 빈곤의 민감도 자체가 음의 부호임을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빈곤율 변화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빈곤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성장요인과 빈곤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33) 앞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성장은 분배중립적이며, 평균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Dollar and Kraay[2002], Kraay[2005] 등)이며, 개방화 역시 평균적으로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방화는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삼단논법을 과감히 적용시키는 경우와 그에 대한 경계를 요하는 경우가 대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감소적 성장에 있어 성장과 분배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 개방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그 본질이 매우 흡사하다.

34) Aisbett(2003)는 개방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 12가지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제시하고 있다. ① 무역은 성장의 원인과 자주 관련되어 있다. ② 성장은 빈곤자에게 평균적으로 좋다. ③ 미국과 EU는 특히 농업과 섬유분야에서 무역을 자유화해야 한다. ④ FDI는 성장의 원인과 자주 관련되어 있다. ⑤ 단기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유해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⑥ 정부는 자유화의 결과로 피해를 보는 빈곤자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⑦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는 수정되어야 한다. ⑧ 교육, 보건 그리고 신용에 대한 접근은 빈곤자가 개방화로부터 이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다. ⑨ 빈곤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및 보건의 측면에서도 추정되어야 한다. ⑩ 과도한 집단적

서 빈곤의 감소에 유리한, 즉 성장과 분배에 모두 유리한 정책변수에 대한 탐색은 국가별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선행되기 이전에는 실증분석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기 어렵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향후 과제

1. 요약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은 Kuznets(1955)의 역U자형 가설(inverted U-hypothesis)에 의해 제기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상충관계(trade-off) 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현재 많은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보편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모델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우 초기 성장모형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성장을 저해

하지 않는 빈곤감소의 재분배 경로를 모색하는 시도들로 옮겨졌으나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의해 성장이 빈곤감소에 최적이라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견해가 지배하게 됨에 따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라는 초기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한 도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의 많은 실증적 분석은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은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에서는 성장기조의 유지를 위한 안정화 및 조정정책이 빈곤과 분배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국가의 높은 경제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소득불평등도로 인하여 가능하였다는 견해가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까지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1970년대에 제기되었던 ‘성장을 통한 분배(distribution with growth)’라는 친분배적 주장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³⁵⁾ 주장의 핵심은 생산성이 증가하면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자뿐만 아니라 다

(다국적기업 등을 의미) 힘(자본 또는 시장)은 문제이다. ① 엘리트에 의한 시장 또는 정치적 장악은 성장과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② 많은 개발도상국에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
35) 여기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집단을 자산을 가진 자 또는 자산에 접근하는 형식(asset ownership or mode of access to assets)으로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른 집단에게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배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의미이며, 소득불평등도(특히 자산의 측면에서)가 높으면 사회적 갈등이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주장은 2000년대 초반에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나 한 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는 실제로 빈곤을 감소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들은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경로 파악의 측면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빈곤과 불평등도의 관계에서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절대적 빈곤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 변화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양극화의 해소정책은 정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시대적 변천을 겪은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좀 더 많은 연구들과 거기에서 밝혀진 강력한 실증분석의 결과 빈곤퇴치에 성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국가 간(cross section)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강력한 결과

이나, 한 나라(예를 들면, 한국)에 이를 직접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Ravallion (2001a, 2005a)의 언급처럼, 평균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평균과 상이한 특정한 나라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탄력성의 분해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장은 빈곤퇴치에 필수조건이며, 분배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1980년대 성장, 분배관계의 문헌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득 불평등도의 증가가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1970년대의 나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8년 말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는 빠른 속도로, 빈곤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유경준·김대일[2003]). 따라서 한국은, 어떤 원인이 외환위기 이전의 또는 1990년대 이전과 이후의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현재의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향후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최근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과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참여정부 이후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과거 개발연대에 후진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성장중심정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었을 수 있다. 개발연대에는 성장이 적어도 소득의 측면에서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개선시키면서 빈곤을 빠른 속도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불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률은 감소하고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양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분배에 대한 욕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참여, 분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은 향후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논쟁이 아니라 양자가 사용하는 용어조차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I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로 기본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용어의 사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한 정책이 시행되어 결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필요하나 시기의 구분 없이 단기에 있어서만의 효

과를 논하고 있으며(시계의 문제), 소득 불평등도의 의미가 절대적 의미인지 상대적 의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집계의 문제),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을 상정하고 하는 것인지 독점적 구조를 상정하고 하는 것인지, 불평등의 정의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의 배제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도의 정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소득분배 양극화의 경우, 해소해야 할 과제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축소의 추구인가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축소의 추구인가에 따라 그 본질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가구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첫 번째 가구의 소득은 100만원, 두 번째 가구의 소득은 300만원이었고, 그 다음해 두 가구의 소득은 각각 2배 증가하여 200만원, 6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상대적 의미의 소득불평등도(예를 들어, Gini 계수)는 변함이 없으나 절대적 의미의 소득불평등도(예를 들어, 빈자와 부자의 소득 격차)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양극화의 해소가 절대적 불평등도의 축소에 있다면 위와 같은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위

의 변화에서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 불평등도와 절대빈곤율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로 여길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의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의 정의와 관련하여 빈곤감소적 성장의 첫 번째 정의-빈곤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를 동반하는 성장-에서는 위의 소득변화를 빈곤감소적 성장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정의-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이라 여기는 차이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 간에는 평균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성장과 절대적 소득 불평등도가 항상 음의 상관관계에 있고, 성장은 평균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있어 양극화 해소의 의미가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축소라면 이는 빈곤감소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최근의 이 분야의 연구동향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에서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에 대한 연구로 옮겨가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성장이나 분배를 추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빈곤의 퇴치에 있다고 하면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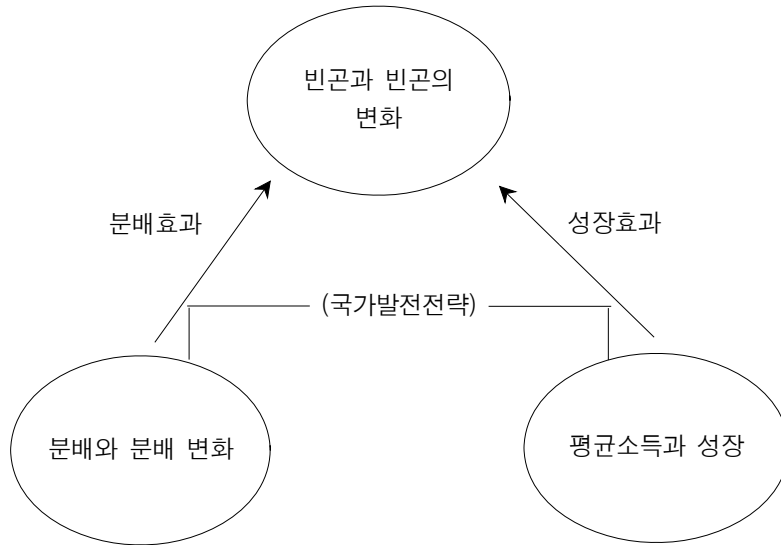
로와 정책변수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들의 삼각관계의 탐구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역할이 다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빈곤퇴치를 위한 발전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을 위한 연구 결과는 특히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취약하다. 또한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국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향후 이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발전전략의 목표를 세계은행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빈곤감소 자체에 성장과 분배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결정요인을 찾는 과정과 유사하므로 성장과 분배에 관련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결국 한 국가의 발전전략이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의 최종목표가 빈곤의 해소에 설정될 경우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필수적으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



둘째, Kanber(2001)의 언급처럼 빈곤이나 소득불평등도 등 논의하고자 하는 변수 및 용어의 정의, 정책시행과 효과 발생의 시점, 시장구조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불일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의 경험이나 국가 간 자료에 의한 분석은 참고로 삼을 수 있으나 그에 따라 한국도 그럴 것이라는 식의 선부른 결론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70~80년대에 성장을 하면서 분배구조가 좋아진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한 국가이므로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양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빈곤율이 증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쉽지는 않겠으나, 빈곤감소적 성장의 한국적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이 분야의 실증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성, 「복지지출 및 조세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정책연구시리즈 2004-02), 한국개발연구원, 2004.
- 브루킹스연구소 로저 알트만 외, 「해밀턴 프로젝트」, KDI 경제정보센터, 2006.
- 신동균·전병유,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제28권 제3호), 2005.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폴 크루그먼, 「팝 인터내셔널리즘」, 김광전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1997.
- Adelman, Irma and Cynthia Taf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ment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Adelman, Irma and Sherman Robinson, “Incom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in H. Chenery and T.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ume II,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9, pp.951~1003.
- Aghion, Philippe, Eva Caroli, and Cecilia Garcia-Penalosa,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s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4), 1999, pp.1615~1660.
- Ahluwalia, Montet S., “Income Inequality: Some Dimensions of the Problem,” in Hollis B. Chenery et al. (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_____, “Income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Some Stylized Fac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6a, pp.128~135.
- _____,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 1976b, pp.307~342.
- Aisbett, Emma, “Glob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 Are the Criticisms Vague, Vested, or Valid?” Prepared for the NBER pre-conference on Glob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 2003.
- Alesina, A. and R. Perotti,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6), 1996.
- Alesina, A. and Dani Rodrik,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1994, pp.465~490.
- Arrow, K. J.,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Learning by Do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 1962, pp.155~173.
- Atkinson, Anthony 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pp.244~263.

- _____, *The Economic of Inequality*, 2nd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3.
- _____, "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Econometrica* 55, 1987, pp.749~764.
- _____, "Bringing Income Distribution in from the Cold," *Economic Journal* 107, 1997, pp.291~321.
- Atkinson, Anthony B. and A. Brandolini, "Promise and Pitfall in the Use of Secondary Data Set: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Nuffield College Oxford, 1999.
- Atkinson, Anthony B.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ume I,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99.
- Banerjee, A. and E. Duflo, "Inequality and Growth: What Can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8, 2003, pp.267~299.
- Barro, R.,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2000.
- Baulch, Robert and Neil McCulloch, "Tracking Pro-Poor Growth," ID21 Insights No. 31,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00.
- Benabou, Roland, "Inequality and Growth," in Ben Bernanke and Julio Rotemberg (ed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s Annual*, Cambridge: MIT Press, 1996, pp.11~74.
- Bertola, G., "Factor Shares and Savings in Endogenous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3(5), 1993, pp.1184~1198.
- _____, "Macroeconomics of Distribution and Growth," in A. B. Atkinson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Amsterdam: North Holland-Elsevier, 1999.
- Birdsall, N. and J. L. Londoño, "Asset Inequality Matters: An Assessment of the World Bank'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 87(2), 1997.
- Blau, Francine D. and Lawrence M. Kahn, "Do Cognitive Test Scores Explain Higher US Wag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821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2001.
- Borjas, G. J., R. B. Freeman, and L.F. Katz, "On the Labo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and Trade," in G. J. Borjas and R. B. Freeman (eds.), *Immigration and the Work For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Bourguignon, F., "Crime as a Social Cost of Poverty and Inequality: A Review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DELTA, Paris, 1998.
- _____, "The Pace of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Paper presented at LACEA 2001 Conference, 2001.
- _____, "The Growth Elasticity of Poverty Reduction: Explaining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and Time-periods," in T. Eichler and S. Turnovsky (eds.), *Growth and Inequ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2003.

- _____, "The Poverty-Growth-Inequality Triangle," Paper Presented at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orld Bank. February 4, 2004.
- Chen, Shaohua and Martin Ravallion, "How Did the World's Poorest Fare in the 1990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7, 2001, pp.283~300.
- _____, "How Have the World's Poorest Fared Since the Early 1980s?"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9(2), 2004, pp.141~170.
- Chenery, H. and M. Ahluwalia,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Cline, William,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Survey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January 1975, pp.359~400.
- Datt, Gaurav and Martin Ravallion, "Growth and Redistribution Components of Changes in Poverty Measures: A Decomposition with Applications to Brazil and India in the 1980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8, 1992, pp.275~295.
- Deninger, K. and L. Squire,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3), 1996.
- _____,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1998, pp.259~287.
- Dollar, David and Aart Kraay, "Trade, Growth and Poverty,"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2001.
- Dollar, David and Aart Kraay,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7(3), 2002, pp.195~225.
- Easterly, W. and S. Rebelo,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1993, pp.417~458.
- Eicher, Theo S. and Stephen J. Turnovsky (eds.), *Inequality and Growth*, The MIT Press, 2003.
- Fields, Gary 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_____, "A Compendium of Data on Inequality and Poverty for Developing World," Cornell University, 1989.
- _____,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1.
- Fields, Gary S. and George H. Jakubson, "New Evidence on Kuznets Curve," Cornell University, 1994.
- Forbes, K.,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2000.
- Foster, James., J. Greer, and E. Thorbecke,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52, 1984, pp.761~765.
- Freeman, Richard B., "How Much Has De-Unionization Contributed to the Rise in Male Earning Inequality?" in Uneven Tides, S. Danziger, and P. Gottschalk (ed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93, pp.133~163.

- _____, "Toward an Apartheid,"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96, pp.114~126.
- Galasso, Emanuela and Martin Ravallion, "Decentralized Targeting of an Anti-Poverty Progra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 2005, pp.705~727.
- Galor, O. and J.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1993.
- Gundlach, E., J. Pablo, and N. Weisert, "Education is Good for the Poor: A Note on Dallar and Kraay," in Anthony Shorrocks and Rolph van der Hoeven (eds.),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Kakwani, Nanak, "Poverty and Economic Growth with Application to Côte D'Ivoir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 1993, pp.121~139.
- Kakwani, Nanak and E. Pernia, "What is Pro-Poor Growth?" *Asian Development Review* 18, 2001.
- Kakwani, Nanak and H. Son, "Pro-Poor Growth: Concept, Measurement, and Application," unpublished mimeo,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2.
- Kakwani, Nanak, H. Son, and S. Khandker, "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 with Applications to Korea and Thailand," World Bank, 2003.
- Kaldor, N.,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3(2), 1956, pp.94~100.
- _____, "A Model of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67, 1957, pp.591~624.
- Kanber, Ravi, "Income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n A.B. Atkinson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ume I,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2000, pp.709~842.
- _____, "Economic Policy Distribution and Poverty: The Nature of Disagreements," *World Development*, Vol.29, 2001, pp.1083~1094.
- Kaufmann, P. J., A. Kraay, and M. Mastruzzi, "Government Matters III: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 1998, 2000, and 2002,"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8(1), 2004.
- Kravis, I.,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60, pp.408~416.
- Kraay, Aart, "When is Growth Pro-Poor? Evidence from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05.
- Krueger, Alan B., "How Computers Have Changed the Wage Structure: Evidence from Micro Data, 1984-89," mimeo, Princeton University, August 1991.
- Krugman, Paul, *Pop Internationalist*, The MIT Press, 1997.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955, pp.1~28.
- _____,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part 2, January 1963, pp.1~80.
- Lewis, W. 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22,

- 1954, pp.139~191.
- Li, H. and H. Zou, "Income Inequality is Not Harmful for Growth: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3), 1998.
- Lindert, P.H.,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Lopez, H., "Pro-Poor-Pro-Growth: Is There a Trade-Off?"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378, 2004.
- Lopez, H. and L. Serven, "The Mechanics of Growth-Poverty-Inequality Relationship," Mimeo, The World Bank, 2004.
- Lucas, 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1988, pp.3~42.
- Lundberg, M. and L. Squire, "The Simultaneous Evolution of Growth and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113, 2003.
- Murphy, Kevin M. and Finis Welch(1991),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Wage Differentials," in M. Koster (ed.), *Workers and Their Wages*,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991, pp.39~69.
- Oshima, Harry T., "Kuznets' Curve and Asian Income Distribution," in Toshiyuki Mizoguchi et al. (eds.), *Making Economies More Efficient and More Equitable: Factors Determining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Paukert, Felix, "Income Distribution of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 Survey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August-September 1973, pp.97~125.
- Perotti, Roberto,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996, pp.149~187.
-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600~621.
- Ravallion, Martin, "Growth and Poverty: Evid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80s," *Economics Letters* 48, 1995, pp.411~417.
- _____, "Can High Inequality Developing Countries Escape Absolute Poverty?" *Economics Letters* 56, 1997, pp.51~57.
- _____,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Looking Beyond Averages," *World Development* 29(11), 2001a, pp.1803~1815.
- _____, "Inequality Convergence," World Bank Research Working Paper 2645, 2001b.
- _____, "Measuring Pro-Poor Growth", *Economics Letters* 78(1), 2003a, pp.93~99.
- _____, "The Debate on Globalization, Poverty and Inequality: Why Measurement Matters," *International Affairs* 79(4), 2003b, pp.739~754.
- _____, "Pro-Poor Growth: A Primer,"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42, 2004a.
- _____, "Competing Concepts of Inequality in the Globalization Debate," *Brookings Trade Forum*

- 2004b, pp.1~38.
- _____, "Inequality is Bad for the Poor,"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677, 2005a.
- _____, "Looking Beyond Averages in the Trade and Poverty Debat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461, World Bank, Washington DC., 2005b.
- _____, "A Poverty-Inequality Trade-off?"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579, 2005c.
- Ravallion, Martin and Monika Huppi, "Measuring Changes in Poverty: A Methodological Case Study of Indonesia During and Adjustment Period," *World Bank Economic Review* 5, 1991, pp.57~82.
- Ravallion, Martin and Shaohua Chen, "What Can New Survey Data Tell Us about Recent Changes in Distribution and Pover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2), 1997, pp.357~382.
- _____, "Measuring Pro-Poor Growth," *Economics Letters* 78(1), 2003, pp.93~99.
- Rodrik, D.,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processed, Kennedy School, Harvard University, 1997.
- Romer, P. 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986, pp.1002~1037.
- Shorrocks, A. and Rolph van der Hoeven (eds.),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Solow, R.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1956, pp.65~94.
- Son, Hyun and Nanak Kakwani,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itial Conditions Matter," Working Paper 2, International Poverty Center, UNDP, 2004.
- Uzawa, H., "Optimum Technical Change in an Aggregative Model of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6, 1965, pp.18~31.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World Development Report: Attacking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Pro-Poor growth in the 1990's: Lessons and Insights from 14 Countries*, World Bank, 2005.